

후지 5 호

후지산 북쪽 기슭에 늘어서 있는 다섯 호수는 수세기 동안 인기 있는 관광 명소였지만 ‘후지 5 호’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았었습니다. 1927 년 신문사의 주최로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선정하는 콘테스트가 개최되었는데, 거기에 기업가이자 정치가였던 호리우치 료헤이가 ‘후지 5 호’라는 이름으로 응모해 선정되면서 이 이름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후지 5 호’라는 이름은 비교적 새로운 것이지만 이 이름이 붙여지면서 다섯 호수가 근대화된 관광지로 발전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섯 호수는 후지산 북쪽에 호를 그리듯 늘어서 있습니다. 후지 5 호는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모토스코, 쇼지코, 사이코, 가와구치코, 야마나카코를 이르는데, 이 중 야마나카코 호수는 다른 네 개의 호수보다 크고 후지산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형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거듭된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서쪽에 있는 세 호수는 과거 세노우미라는 이름의 커다란 하나의 호수였습니다. 가장 서쪽에 있는 모토스코 호수는 4,500 년 전 용암류에 의해 세노우미에서 처음으로 분리된 호수입니다. 901 년에 편찬된 역사서 일본삼대실록(日本三代實錄)에는 864 년의 조간 대분화(貞觀大噴火)로 ‘대지와 바위가 녹아’ 세노우미의 잔해로 ‘흘러들어간’ 모습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분화는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의 용암대지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쇼지코 호수와 사이코 호수를 분리시켰습니다. 모토스코 호수, 쇼지코 호수, 사이코 호수는 수위가 같기 때문에 지금도 지하로는 연결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가와구치코 호수와 야마나카코 호수도 수세기 동안 반복된 분화 활동으로 후지산 북동쪽에 있던 하천이 막혀 흐름이 변하면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각 호수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크고 후지산과도 가장 가까운 야마나카코 호수는 수상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호수입니다. 가와구치코 호수는 해발고도가 가장 낮고 이들 호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섬인 우노시마 섬이 있습니다. 도쿄로 이어지는 철도역에서 호숫가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호는 북쪽에 바로 산이 있어서 호수와 함께 하이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호수인 쇼지코 호수의 호안에는 후지 5 호 중에서 가장 먼저 서양식 호텔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후지 5 호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멀리 떨어진 모토스코 호수는 주변에 캠핑장이 많아 캠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호수마다 후지산의 각기 다른 표정을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후지 5 호는 사진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인기 있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